

에너지밸리 성장기 진입...세계 에너지 新산업 허브 순항



조환의 한전 사장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조성중인 에너지밸리가 4차 산업혁명의 요람으로 태동하면서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에너지밸리 입주 예정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나주 혁신도시의 미래 청사진도 구체화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토대 마련=한국전력(사장 조환의)은 최근 한전 본사에서 광주시(시장 윤장현), 전남도(도지사 이낙연), 한전KDN(사장 임수경)과 함께 글로벌텔레콤 등 23개의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한전은 지금까지 200개의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누적 투자금액 8810억원 및 608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이들 기업들은 ESS분야의 우진산전 등 에너지신산업 기업 13개사와 수·배전반 제조분야의 신창전설 등 전력 기자재 기업 10개사 등 총 23개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강소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투자지역으로는 글로벌텔레콤 등 6개 기업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에코그린텍 등 7개 기업이 광주지역에, 가람전기 등 10개 기업이 나주지역에 투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도입기를 거쳐 2016년까지의 177개의 기업유치를 달성하였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총 200개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올해 250개의 기업유치 목표와 함께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밸리의 성공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전은 최근 중소기업들이 핵심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전의 '일자리드림'제도 약정서 수여식도 가졌다.

'일자리드림'은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제도로 한전과 기업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200개 기업 총 8810억원 투자
4차산업혁명 선도 기업 23곳 동시
연말까지 250개 기업유치 목표
중소기업 핵심인력 임금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매진**

근로자가 일정 비율별로 매칭하여 5년간 적립한 후 만기에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약정식에 참가한 제너시스시스템(변전소 종합예방진단시스템)과 누리텔레콤(AMI)은 핵심인력 3~5명에 대해 월 20만원씩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분야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조환의 사장은 "올해는 GE의 HVDC 융합클러스터 구축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실행과 함께 ICT 기업유치 및 육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신산업이 집약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월에 개소한 빛가람청조경제혁신센터와 나주 혁신산단에 조성될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등 정업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 되고, 광주 도점산단에 2018년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되면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조 사장은 "광주시 및 전남도와도 협력을 통해 기업 유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기업과 소통을 통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주 기업간 유기적 협력 체계도 구축=한전은 투자협약 체결 기업 수에 만족하지 않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협약기업의 조기 안착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에 협약한 133개 기업 기준으로 현재 75개 기업이 투자를 실행했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투자촉진단을 구성하여 협약기업

입주지원 컨설팅을 시행한 결과 올해 말까지 31개 기업도 추가로 투자를 실행하기로 했다. 기업 유치가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 투자 환경을 고려했을 때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유치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한전의 투자 유치가 거둔 성과를 짐작케한다.

두산중공업(대표이사 정지택)은 ESS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업무 및 R&D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에너지(대표이사 류두형)도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1단계로 ESS 및 태양광 중심의 R&D 협력을 추진하고, 2단계로 분산 에너지 발전사업 및 관련 서비스사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국 최초 농약 살포용 무인헬기를 개발한 무석한화항공공유한기술공사는 한국의 에스엠소프트웨어(대표이사 박영남)와 합작법인을 설립, 250억원을 투자해 R&D센터를 개설하고 한국지

행에 최적화된 드론 운영 기술을 개발한 후 전력설비 감시 등의 산업용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밖에 BMF는 로프형 태양광 기술을 보유한 스위스 국적의 혁신기업으로 한국의 한일(대표이사 박상우)과 합작해 원가절감을 위한 로프, 절연 커넥터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 개발하고 전남도 임야(시유지, 군유지 등)를 활용하여 성능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환의 사장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는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미래를 독차지 할 것이며 에너지밸리 투자기업이 신에너지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면서 "한전은 산업부와 함께 연내 2조원의 에너지신산업펀드를 결성하는데 에너지밸리 투자기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지난 3월 27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1차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식을 갖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제공〉

전력산업의 심장을 뛰게하는 한전KPS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고객의 사랑과 신뢰 속에 성장해 온 한전KPS!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전력산업발전의 초석이 되어 온 한전KPS가 세계 최고의 발전플랜트 Total 서비스 기업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의 더 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기업, 한전KPS!

